

개 회 사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존경하는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선 한해를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의 지원 하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과 함께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협동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령화협동연구는 앞으로도 2006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지난 1년간 각 연구원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주요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관계 및 언론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은 단순히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도 중요하겠으나, 인구고령화현상이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향후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인 노동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고 생산적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인당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3만불 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이는 실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약화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불안 등 각종 제도적 요인들이 이러한 고령화의 부작용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현상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출산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출산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구고령화는 이미 피해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서두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늘어나는 고령층들이 보다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개혁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도 시급합니다. 저축률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기금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노인의료·노인주거 등 복지수요증대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복지지출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재정규율과 재정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연금 개혁이나 의료개혁 등은 많은 기득계층과 이해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으며, 정치적 인기영합주의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개혁을 늦출 경우 우리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협동연구기회를 마련해주신 경제사회연구회에 5개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